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1. 하느님의 사랑이 아기 예수를 통해 온 세상 모든 이에게 드러난 참으로 기쁜 날인 성탄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가정 축일을 시작으로 온 가족이 함께 사랑과 가정의 의미를 새기는 가정성화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주간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가 맺는 계약의 효과적인 표징”이자(『가톨릭 교회 교리서』, 1617항), “생명을 바쳐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 주겠다는 동의를 성찬의 희생제사 안에서 실현되는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봉헌과 결합시키는”(『가톨릭교회교리서』, 1621항) 혼인성사의 본래 의미를 깊이 성찰하고, 그동안 이 약속에 얼마나 충실해 왔는지 각자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 최근에는 경제난과 개방적인 결혼관 등으로 혼인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과 더불어 혼인비용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혼인을 하는 경우에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자녀라는 ‘뛰어난 선물’을 외면하는”(『가톨릭 교회 교리서』, 1665항) 경향이나 다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부부들은 “혼인에 내포된 상호 증여의 약속, 끊임없이 그 약속을 지켜나가며 부부의 일치를 통한 사랑의 삶을 성장시킬 소명(『가정공동체』, 19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인의 소명은 현실의 부부들의 삶에서 상당히 약화된 느낌입니다. 혼중혼인과 비신자와의 혼인이 늘어나 성사혼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최근 국제혼의 증가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문화적 충돌과 더불어 혼인의 삶에 대한 다양한 의미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의 내밀한 부부 공동체’라는 혼인성사의 본래적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도록 요청합니다.

3. 혼인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이유로 경제생활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의 감소, 개방적 결혼관, 감각적 문화의 왜곡된 가치관 등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땀 흘려 일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바탕과 토대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이들이 건전한 가치관, 건전한 혼인관을 갖도록 교회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정은 자녀들에게 부부사랑의 전형을 보여줌으로써 참된 사랑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에 대해서는 출산 장려정책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제도 마련까지도 필요함을 역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교회에서는 출산과 자녀교육이라는 가정의 기본적 소명을 시대가 요청하는 의미로 새로이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혼으로 형성된 다문화 가정을 따뜻하고 공정한 시선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아주는 일도 우리 시대가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4. 교회는 혼인의 성사적 의미를 되새기도록 그리스도인 가정에 촉구하며 특별히 사랑의 헌신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가정을 축복하고 지지합니다.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사의 품위로 들어 높이신”(사목헌장, 48항) 혼인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 깨달음에 기초하여 그리스도 신자의 의무를 다할 때, 혼인과 가정을 위협하는 모든 반생명적 문화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을 통해 곳곳에 혼인의 성사적 의미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모든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12월 27일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신앙심과 마음의 능력

신앙은 올바른 진리에 대한 확신을 필요로 한

다. 그리고 신앙심은 이런 확신을 살아가게 해주는 마음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심이란 예수님을 닮으려는 마음이다. 하느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여 자신을 죽음의 십자가에 내어주면서도 부활의 희망을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열정(passion)을 닮으려는 마음의 힘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가 이와 같은 열정과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 살려고 해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기는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상처와 갈등들, 교회 안에서의 느끼는 실망과 회의 등으로 이 열정은 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내게 그런 열정이 사라져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는가? 대답은 그렇다. 이유가 어쨌든 세례성사를 통하여 내 마음이 하느님을 떠나서는 잠시도 평화로울 수 없다는 실존적 처지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 내가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거나, 길을 찾지 못했거나, 때로는 알면서도 가고 싶지 않은 것뿐이다.

우리의 마음(心)은 어떤 대상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러나 마음이 향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넘칠 수도 있고, 분노와 걱정이 앞설 수도 있다. 신앙심은 우리 마음이 향하는 힘을 참된 진리이신 하느님께로 향하고, 올바른 선(善)을 지향할 때 생긴다. 그저 주일 미사나 판공성사의 의무를 채우는 데 급급한 신자들에게 신앙심이란 남의 이야기이다. 마음이 하느님을 절실하게 찾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에 합체되더라도 사랑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교회의 품 안에 ‘마음’이 아닌 ‘몸’만 남아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교회헌장 14항). 신자라 하더라도 성당문을 나서면 더 완고하고, 세속적이며, 가톨릭 정신과 무관해지는 우리들의 치졸한 마음을 꼬집는 말이다.

세상살이가 힘들어질수록 마음의 능력을 되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국에는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남을 바꿀 수 없을 때 차라리 내가 바뀌

면 된다는 단순한 논리를 깨달은 인생 선배들의 덕담이 공감에 가는 때이다. 거짓 마음을 버리고 참된 마음(眞心)을 찾기 위한 내적 수양을 강조하는 불교의 수행이나, ‘화’를 다스리는 법, 명상과 뇌호흡 등을 통한 기수련 등의 자기계발과 마음 수행이 복잡한 현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력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심은 단순히 자신의 마음을 수련하는 것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신앙심은 자아수련을 통해 마음의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을 직면할 수 있게 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앙심은 고통의 근원을 없애는 예방의학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고통의 현실을 극복하게 해주는 치료의학의 힘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얻는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심은 십자가 없이는 생기지 않는다. 십자가에 이기적인 나를 못 박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죽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죽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힘을 키워야 한다. 하느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마음의 힘. 그 힘을 주심사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그분 앞에 앓을 수 있는 용기가 그 시작이다.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본 당 소 식

◎ 공동체를 위한 청원기도를 시작하며

지난 주일 '경과보고'를 통해 알려드렸듯이 저희 공동체의 본당주임사제의 파견은

원주교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하루가 급한 저희 실정으로 미루어 볼 때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개별적으로 바쳐오던 공동체 지향 청원기도를 각 구역별로

통합하여 기도지향하고, 더불어 십자가의 길을 매 주일 함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곧 오시리라는 기대와 희망 속에 기다려왔던 본당주임사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였고, 더 절실한 기도와 성찰을 갖기를 메시지로 전해 주셨습니다.

모름지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간곡한 청원 이전에 우리의 변화 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비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 너희가 그토록 원한다니 들어주겠다. 그런데 목자를 맞을 준비는 되었느냐?"

*** 십자가의 길: 매 주일 오후 4시 15분 (시작 /12월 27일 부터-사목위원은 필히 참석 요망)**

*** 묵주기도 지향: 각 구역별로 공동체분과장에 게 통계보고(12월 31일까지)**

◎ 사목위원 및 구역장 선임 안내

책임 신부님이신 고원일 안드레아 신부님의 재가를 받아 아래와 같이 사목위원회의 위원 및 구역장을 임명합니다.

재정분과장: 고영호 미카엘 형제

워털루 1구역장: 류무열 레오비노 형제

그동안 재정분과장으로 수고해주신 류무열 형제에게 감사 드립니다.

◎ 총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10년 헌금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 : 안내 담당 /재정부장

◎ 사목회의 안내

오늘 미사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모든 사목위원과 구역장, 단체장의 참석을 요합니다.

▶2010년 달력이 도착하였습니다. 각 구역장은 사목회의 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바뇨의 성모 기도 모임 안내

모임 시간이 1월 8일 오후 7시로 변경 되었습니다. 장소는 교육관입니다.

◎ 성모회에서 알려드립니다.

▶ 오늘은 성모회에서 푸짐한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2009년을 마무리하면서 즐거운 친교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2010년 1월 3일 신년 친교 식사도 성모회에서 준비합니다. 많이 오셔서 새해를 즐기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 성모회 신년 모임이 2010년 1월 7일 (목) 오후 6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2010년 매일미사책 구입 안내

▶비용:1년치 \$48.00 ▶신청 ; 박재영 선교부장

◎ 성가대에서 알려드립니다.

장크리스티나 자매님의 개인 사정으로 성가대 반주를 맡아주실 교우를 찾습니다. (0 명)

▶문의 : 성가대 단장 / 지휘자

2009년 12월 20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740.00
교 무 금 : \$ 20.00
감 사 금 : \$ 50.00
성전건립 : \$
성모님동산 (누계):금주\$10 (\$5540.00)
합 계 : \$ 810.00

성모님 말씀 묵상

나는 너희에게 다음 세 가지를 특별히 당부하겠다. 첫째, **성시간(聖時間)을 행할 것**. 성시간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중개자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자비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나의 오상(五傷)을 극진히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 다섯 번을 바칠 것**. 모두가 이러한 신심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이 세상은 구원받을 수가 있다.

셋째, 너희가 하고 있는 일과 모든 행위를 **나의 성심에 항상 일치시키도록 노력할 것**. 나는 나의 마음과 일치된 너희 행실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겠다.

항상 나의 마음과 성혈, 그리고 나의 생명을 너희 사업에 이용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마음에 의탁하여라.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www.kwpaul.com

주임신부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519 758 9526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평일 미사

유아 세례

병자 성사

혼인 성사

예비자교리

고해성사

축복식(차량,주택,가게)

주일 오후 5시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1주일 전 신청

상시

10개월 전 신청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

미사 전 20분

1주일 전 신청

2009-52호

2009. 12. 27.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해설 노재현

차주 해설

성 가

일 당 (113) 성 요셉과 성 마리아

봉 헌 (210) 나의 생명드리니

성 체 (180) 겸의 작은 그릇

퇴 장 (114) 나자렛 성가정

화 답 송 ◎ 주님, 당신 집에 사는 이들은 행복하나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 저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알렐루야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독 서

12월 27일 박용대

박명옥

봉 헌

12월 27일 김동규

김은옥

복 사

12월 27일 류지현

김건우

친 교

12월 27일 성모회 (송년 잔치)

1월 3일 성모회 (신년 잔치)